

PHILIPS

AVENT

ultra soft 노리개 젖꼭지

부드럽고 유연한 재질

6-18개월

치아 교정형 및 BPA 불포함

2개입

SCF213/22



아기의 섬세한 피부에 알맞은 부드러운 노리개*

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유연한 날개

필립스 아벤트 ultra soft 노리개로 아기의 섬세한 피부를 지켜주세요. 부드럽고 유연한 날개가 아기의 볼 모양에 맞춰지기 때문에 자국과 피부 자극이 적어 더욱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FlexiFit 날개 기술

- 피부 자극을 줄이고 자국을 남기지 않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날개
- 언제나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둥근 날개
- 아기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여분의 공기 구멍

편안하고 부드러운 젖꼭지

- 98%의 아기가 받아 들이는 부드러운 질감의 실리콘 젖꼭지*
- 편안하게 달래주는 부드러운 질감의 젖꼭지
- 자연스러운 구강 발달에 알맞은 디자인

휴대용 소독 케이스

-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안전하고 쉬운 소독
- 3분 안에 간단하게 완료되는 안전한 소독

보장된 품질

- 수상 경력에 빛나는 영국의 제조 현장에서 제작



a simpleswitch.com

주요 제품

유연하고 부드러운 날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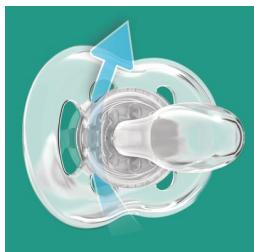
민감한 피부에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FlexiFit 기술로 젖꼭지의 날개가 아기의 둥근 얼굴에 밀착되어 편안하게 맞습니다. 덕분에 아기의 얼굴에 자국이 남지 않고 피부의 자극도 줄어듭니다.

둥근 날개



아기의 볼에 부드럽게 딱 맞는 둥근 날개가 피부 놀림을 최소화하여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

원활한 공기 흐름



당신의 특별한 아기의 피부처럼 숨 쉬는 아기 피부를 위하여 노리개의 날개는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하여 공기가 더 잘 통할 수 있도록 6개의 공기 구멍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.

98%가 받아 들이는 실리콘 젖꼭지



아기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. 엄마들에게 자사의 실리콘 재질 젖꼭지를 아기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물어본 결과 98%의 아이가 필립스 아벤트 울트라 소프트 노리개 젖꼭지를 쉽게 받아들인다고 응답했습니다.

부드러운 질감의 젖꼭지



이 부드러운 질감의 실리콘 젖꼭지는 아기를 편안하게 달래줍니다.

치아 교정형 노리개 젖꼭지



당사의 부드러운 실리콘 젖꼭지는 대칭형 모양으로 아기의 입천장, 치아, 잇몸이 성장 과정에 알맞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.

소독기/휴대용 케이스



휴대용 케이스를 사용하여 아기의 노리개 젖꼭지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소독할 수 있고 이동 시에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

간편하게 소독할 수 있는 케이스



잘 행군 노리개 젖꼭지를 케이스에 넣고, 약 25ml(9fl.oz.)의 물을 넣은 다음, 750~1000W 전자레인지에 3분을 데웁니다. 5분 동안 식힌 다음 물을 버리면 됩니다.



asimpleswitch.com

필립스 친환경 로고

필립스 친환경 제품은 비용,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(CO₂) 배출을 절감해 줍니다. 필립스는 친환경을 위한 에너지 효율, 포장, 유해 물질, 무게, 재활용 및 폐기, 수명 안전성 중 한 가지 이상을 개선함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.

사양

구성품

ultra soft 노리개 젖꼭지: 2 개 개입

포함된 액세서리

소독기/휴대용 케이스: 가능*

안전

안전 핸들 링: 가능*

BPA 불포함: 가능*

위생적인 사용

손쉬운 세척: 가능*

소독 가능: 가능*

식기세척기 사용 가능: 가능*



- * 의료 전문가 및 엄마들과 함께 개발
- * 2016~2017 US 소비자 테스트에서 평균 98%의 아기가 ultra air와 ultra soft 노리개에 사용된 질감의 필립스 아벤트 젖꼭지를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* 2014 올해의 제조업체
- * 위생상 4주 사용 후 젖꼭지를 교체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.
- * 전 세계 No. 1 노리개 젖꼭지 브랜드
- * 당사의 제품군은 엄마와 아기의 모든 발달 단계를 지원합니다.
- * 설문에 참여한 85%의 엄마가 필립스 노리개 젖꼭지가 다른 8 개의 주요 브랜드의 모델보다 더 부드럽다고 응답했습니다(미국 독립 설문조사 기관, 2017년 2월).